

시 정 질 문(서면)

류재구 의원

□ 질 문

- 노인정 환경개선과 공원시설의 보완을 위해 노인정을 공원에 접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 시 소유 시설물의 위탁관리에서 시는 일반경영 뿐만 아니라 인사문제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시 어린이집 위탁자 기준을 “법인체로 한한다.”라고 한 기준은 무엇이며 잘못 공포된 시설들의 위탁계약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윤건웅 의원

□ 질 문

- 사업소세에 대하여
 1. 사업소세 제정, 공포 및 시행일자?
 2. 시행일 이후부터 최근 3년 전까지 연도별 부과금액과 납부금액 및 대비는?
 3. 최근 3년 간 개인별 부과금액과 납부금액 및 대비는?
 4. 미납분에 대한 사유와 그 조치는? (미납세자)
 5. 미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은?
 6. 납세자에게 미부과분이 있다면 그 명세와 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덕생 의원

□ 질 문

- 부천시 관할 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어느 곳이 있으며 임대료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무상입주 기관 및 단체는 어떠한 근거로 있으며 잘못된 곳이 있으면 향후 대책은?
- 중동신도시 미매각용지를 임대한 곳은 몇 곳이며 면적과 임대금액은 얼마인지, 토지가 매각될 시 문제점은 없는지, 임대에 대한 법적하자는 없는지?

한상호 의원

□ 질 문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이 시기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는 세기적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때이며 세계 환경을 잘 파악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시대를 맞게 됐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요즘에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전 산하 공무원들의 사명감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사료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천시는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기적인 변화에 대비한 행정을 구현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조직의 구조조정과 예산 감축운용 등으로 시민과 기업들의 모범이 되어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믿음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려하던 사항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부천에 국한하지 않는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부천시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합심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온 것입니다.

부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여건과 사명을 명심하고 철저한 봉사자세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흔히 유행어처럼 말해지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소하는 세수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발과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일에도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와 232개 기초단체의 무려 59%가 극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합니다. 무척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민선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지난 선거 때 마구 벌여놓은 선심성 사업들이 원인이라는 사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러면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99년도초에 35개 동을 순시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약속을 했고 해결해 준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출마시 많은 사항들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과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예산의 마련방법 등과 중단 또는 변경한 사항들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책을 하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한 쌈지공원 조성과 도심지 콘크리트를 깨고 나무심기사업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미래를 내다 본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80만 부천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수자원 중 지하수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마지막 희망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를 비롯한 많은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98년도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수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부천은 빗물로 충전되는 속도보다 훨씬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는 바람에 수년 내에 고갈이 우려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하수가 일단 고갈되기 시작하면 오염이 가속돼 지하수 이용이 어렵게 되고 지반이 침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역은 한강 하류에 위치해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고 좁은 지역에 인구나 산업 시설이 밀집돼 지하수 의존율이 높아 가속도로 지하수가 말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장은 지하수 관리 보고서에 대한 부천시의 그 동안 추진현황과 개인이 소유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출마한 원미구 소사동은 성가병원과 요양원이 있고 수녀원이 있으며 원미산이 있는 그야말로 소시민들이 거주하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의 성향도 매우 조용한 편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배려한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을 배려한 시설이라고는 동네 한가운데에 주택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장 부지가 보기 싫게 자리잡고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위험을 주고 부모들에게는 걱정만 주는 쓰레기로 가득찬 공터만 있을 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소사동 32번지입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무려 9년째 동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선배의원들부터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동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다소 어렵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사동 주민들은 이제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무반응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천시가 속마음을 터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IMF로 고통받고 있는 소사동 주민들을 위로해 줄 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소사동 32번지에 대한 소사동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교통난일 것입니다. 소사동 역시 부천시에서 가장 고질적인 교통체증 지역인 것을 부천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사동은 항구적인 교통체증 해소대책보다는 교통난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미시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기이 설치한 몇 군데의 보도육교에 대하여 많은 질책을 받고 있고 현재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질책의 이유는 보도육교의 효과성을 생각지 않고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제안하겠습니다.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사동 주민들을 위하여 소사북부역 앞 쌍굴다리 횡단보도 위에 보도육교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부천시장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부천시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출마한 지역과 관련된 시정질문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선배의원님들한테 지도받았으나 소사동은 여러모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 질문을 했습니다. 동료 선배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균 의원

□ 질 문

○ 지방물가안정 대책 방안은

IMF 이후 부천의 경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절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 하루를 버티다시피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문보도상으로 경기가 일부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부천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높다는 여론입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자료를 분석하여 본 바로는 소비자물가 509품목 중 전년대비 경기도 전체가 0.8% 인상되었으나 부천은 0.9%이고 개인서비스 54개 품목은 경기도 전체가 0.7%인데 반하여 부천시는 2.4% 인상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년도 부천시 주요시책을 봐도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시정책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에게 무어라 답변할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였다는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부천시가 전국 최고 높은 물가 인상이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안정화시킬 방안은 있는지 물가대책과 관련 어떠한 특단의 시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2000년도 외부재원확보 대책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조달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만화정보센터, 내부자료 확보 등 21개 사업에 시비 1260억 포함 2480억원으로 부천 아파트형공장 880억, 부천종합운동장 350억,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190억, 계수대로 267억, 오정대로 206억, 하수관 설치 39억, 춘의로 확장 120억 등 대형사업에 막대한 외부예산을 들여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재원을 조달받아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부천시만의 막연한 희망이지 투명치 않다는 것이고 확보치 못할 경우 공사 중단은 물론 시가 공사지체상금을 변상하여야 할 뿐더러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천시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을 비롯 전 공직자가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중앙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도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획된 예산이 정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와 계획된 예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른 대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2차 구조조정 기본방향은

공직자의 최대 관심사인 구조조정으로 대다수 공직자가 불안해 하고 있고 향간에 부천시 인사의 잡음으로 인해 공직자의 사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부천시도 210명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감축해야 할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차 구조조정시 퇴출대상자도 현재 상당수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잔여인원 처리문제와 2차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문제 등 그야말로 공직내부의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퇴출되더라도 대다수 공직자가 공감하고 공정하며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명확한 퇴출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기준에는 젊고 유능한 한참 일할 공무원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1차 구조조정 대상자는 현재 몇 명 남아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2차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퇴출기준은 무엇인지와 퇴출대상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공무원 사기양양 대책은

최근의 공직사회는 구조조정, 봉급삭감, 연금관리 불안정 등으로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되며 일선 동 직원의 경우 주민등록 갱신업무 등 시와 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치우는 종전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전에 신문보도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급여수준, 부채액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접수받아 중앙에 건의하고 지사가 전직원을 직접 위로 격려하였다 하는데 부천시 공무원도 경기도 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면 시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다듬어 주는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기진작방안은 있는지와 구

체적 에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상부에 건의한 일은 있는지, 일선 동의 경우는 인력은 감축하고 업무는 종전과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IMF 이후 삭감된 동 직원들의 여비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 종합적인 공직자 사기양양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부천시 차적 옮기기운동 재수정할 용의는

부천시가 98년말부터 세수확보 차원에서 차적옮기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IMF 이후 세수결합 보전을 위해 매우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과 방법면에서 너무 줄속으로 다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다는 점이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관외차량 10,035대를 부천으로 차적을 옮겨 30억원의 세수를 증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성과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작년부터 6월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2%인 200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충분한 시간과 그 차량의 소유자가 부천에 거주하고 계속 부천에서 운행되는가 등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함에도 전 공무원에게 1인당 5대씩 관외차량을 적어 오게 하여 취합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일부 시민이 관외 차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정에 협조를 안하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시 당국이 조사한 차량은 서울이나 인천을 지나는 차량을 관외차량으로 목표로 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것으로 부천에 일보러 온 차량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으로 제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목표를 전면 재수정하고 정밀 제조사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관외 차주도 부천시민인 만큼 시정에 참여하고 애항심을 갖도록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차적옮기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대중화 방안을

부천시의 목표가 21세기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건설로 부천필, PiFan, 만화정보산업, PISAF 등 타도시에 비하여 문화적 기반은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천시립예술단이 국내외에서도 우수한 예술단체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부천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단체나 사업 등은 특정장소에서 활동하고 있어 시민이 접하기는 좀 거리감이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해외 전문을 통하여 느낀 바로는 외국은 시민이 모이는 장소가 문화예술공간이라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역앞, 소공원, 호수가, 대학로 등 몇십 명만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간단한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시민은 따라 부르기도 하고 조용히 연주를 감상하는 것으로 생활주변에 음악과 예술이 가까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시민회관이나 복사골문화센터가 주공연장으로 일상생활에 바쁜 시민이 찾아간다는 것이 어려워 참석이 저조하자 일선 동 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인원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 목표와 같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고정방식을 탈피하고 각계각층 시민이 일상 주변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상동 2단지 개발지구 내 인공호수공원 건설계획은

부천은 좁은 면적에 80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동 2단지가 개발되면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삭막한 도시가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운동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 정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나 인간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친화적인 조건은 나무숲과 흐르는 강물, 문화적 공간이 충족되어야 살기좋은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가 현재와 같이 좁은 공간까지 나무를 심고 21세기를 내다보는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아울러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해 준다면 부천시민은 이 고장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췌습니다.

부천시가 금번에 조성되는 상동 2단지 지구 내에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부 단체인 부천경실련에서도 시민의강만들기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동참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시가 먼저 구상을 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시기와 공원의 규모는 얼마고 물은 하수정화사업소의 방류수를 이용할 것인지 강물을 취수하는 방안인지도 답변바랍니다.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조례에 의하면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시청과 시립도서관, 민방위교육장 및 3개 구청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부천시직장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직장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 공무원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운영권을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6개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저소득층의 생계에 혜택을 줄 수 있

는 방안은 없는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새로 신축된 복사골문화센터 및 기구가 신설된 만화정보센터 등 새로운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허가해 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곳이며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 질 문

- 대풍상가 화재 이후 아직도 피해보상 및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현재까지의 대책 추진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